

## <제7강>

### 제 5 장 띄어쓰기

#### 제1절 조 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 < 해 설 >

1. 조사는 단어로 취급하지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종속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따라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ㄱ.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 : 년들(너-ㄴ들) 못하랴, 남북통일-이야말로, 말-인즉슨 이렇다,

ㄴ.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는 경우 : 이것이나마, 그나마라도 주어라, 너야말로, 방에설랑 뛰지 마라,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ㄷ.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 : 먹기-는커녕, 기쁩니다-그러, “알았다.”-라고.

2. 어미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 없을망정, 얼마나 걸릴런고, 비쌀뿐더러, 땀을 빼리만큼, 질까보냐, 놀기는 할지언정, 먹었는지.

3. 접미사나 접두사도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붙여 쓴다.

ㄱ. 제- : 제1 장 / 제1장, 제3 과 / 제3과, 제2 차 세계 대전, 제3 대 학생 회장  
'제(第)'는 접두사이므로 붙여 쓴다. 다만, 「한글 맞춤법」 제43 항에서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단위명사와 그 앞의 수관형사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위 경우는 '제1 과'로 써도 맞지만 '제1과'처럼 모두 붙여 써도 맞다.

ㄴ. '짜리, 어치':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예) 얼마짜리, 100원어치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해 설 >

1.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고(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문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휘적 의미도 분명하지 않지만, 준자립형식으로 처리하여 단어로 다룬다. 따라서 앞 말과 띄어 써야 한다.

- 의존명사의 구분 방법 :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가지면 의존명사로 볼 수 있다.

- 가. 1음절이나 2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 나. 그 자체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 다.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온다(동사나 형용사가 '-ㄴ, -르' 받침의 형태로 나타난다).

2. 의존명사의 예

- ㄱ. 그가 범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ㄴ. 너는 무엇을 할 터이나?
- ㄷ. 비가 오기에 망정이지.
- ㄹ.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ㅁ. 술은 먹을 줄 모릅니다.
- ㅂ. 모자를 쓴 채로 들어오지 말아라.
- ㅅ. 일어난 김에 좀 가져오너라.
- ㅇ. 정말 한번 읽어 볼 만한 책이더군요.

3. 쓰이는 경우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는 말.

- ㄱ. 같이 :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조사)  
비호와 같이 달리는 기차. (부사)
- ㄴ. 대로 : 떡이든 과자든 마음대로 먹어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갈 길을 가자. (조사)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아껴 쓰라. 보고 느낀 대로 말해라. (의존명사)
- ㄷ. 데 : 이것이 내 차인데 타 보겠니? 키는 큰데, 힘이 없다. (어미)  
우선 앓을 데부터 찾아보자. 아픈 데 먹는 약이다. (의존명사)
- ㄹ. 듯이 :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사탕을 먹듯이, 약도 먹어라. (어미)  
곧 죽을 듯이 말한다. 대학생인 듯이 하고 다닌다. (부사)
- ㅁ. 만 : 떠난 지 닷새 만에 소식이 왔다.(의존명사)  
정신을 잃은 지 사흘 만에 깨어났다.(의존명사)  
- 만(의존명사) :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

- 아무려면 내가 너만 못하겠니? 그 애는 책만 읽는다. (조사)
- ㄴ. 만큼 : 나만큼 해야 된다. (조사)  
 아는 만큼 본다. 앞으로 나아갈 만큼은 나아가자. (의존명사)
- ㄷ. 바 :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어미) : '았더니'  
 어머니의 생신이온바,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어미) : '-인데'  
 생각하는 바가 같다.(의존명사)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고 있다.(의존명사)  
 얻은 바가 많다. (의존명사) : '방법, 일'
- ㄹ. 밖에 : 내게는 오직 너밖에 없다. (조사)  
 그 밖에도 내가 설 수 있는 자연 (의존명사)
- ㄷ. 뿐 :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다. 모인 사람들은 어린이들뿐이었다. (접미사)  
 나는 다만 그의 말을 전했을 뿐이다. 묵묵히 걸을 뿐이었다. (의존명사)
- ㅈ. 지 :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어미)  
 사권 지 삼년 만에 결혼했다. (의존명사)  
 - 지(의존명사) : 어떤 동작으로부터 지금까지 동안

#### 4. 혼동하기 쉬운 것

ㄱ. '것을'의 준말 '걸'은 의존명사로 보고 띄어 쓴다. 다만, 종결어미로 쓰였을 때에는  
 윗말에 붙여 쓴다.

- 그런 걸로 알아라. 저런 것이라도 다 먹을 걸세.
- 아차! 그렇게 할걸! 모르긴 해도 거기 갈걸. 자꾸 말려도 계속한걸요.

ㄴ. '-ㄹ 거야', '-ㄹ 테야'의 띄어쓰기: 띄어 씀

- 이 옷은 네 몸에 맞을 {거다, 것이다}
- 이 옷은 네 몸에 맞을 거야/??맞을 것이야.
- 나도 갈 {테다, 터이다}
- 회사를 그만둘 테야/\*그만둘 터이야.

※ '것', '무엇':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임. '거', '무어':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임.

※ '-ㄹ 테야, -ㄹ 거야'는 차츰 어미화하는 모습을 보임

ㄷ. 합성어와의 구분(서술성이 있는 말이 꾸며주면 의존명사)

- 훈민정음의 지은이는 세종 대왕이다.
- 훈민정음을 지은 이는 세종 대왕이다.
- 늙은이는 움직임이 둔하다.
- 몹시 늙은 이는 눈도 어둡다.

#### 5. 굳어진 것으로 보아 붙여 쓰는 경우.

ㄱ. 이것, 그것, 저것, 아무것, 날것, 들것, 별것, 생것, 탈것(車)

ㄴ. 이이, 그이, 저이, 그분, 이분, 저분,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못난이, 지은이, 옮긴이(譯者)

ㄷ.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위쪽, 아래쪽, 앞쪽, 뒤쪽, 양쪽, 한쪽, 반대쪽,  
 오른쪽, 왼쪽, 이쪽, 그쪽, 저쪽, 앞쪽, 곁쪽, 안쪽

- ㄹ. 이번, 저번, 요번, 먼젓번(비교. 지난 번, 요전 번)
- ㄹ. 이편, 그편, 저편, 오른편, 왼편, 건너편, 맞은편(비교. 자기 편, 상대 편, 우리 편)
  - 비교 : 한편, 형님 쪽에서는..., 한 편에서는 옳다 하고...
- ㅂ. ‘쪽’과 ‘편’이 이어날 적에는 ‘쪽’과 ‘편’을 띄어 쓴다.
  - 이편 쪽, 이쪽 편, 뒤쪽 편, 어느 쪽 편, 어느 편 쪽.
- ㅅ. 이즈음, 그즈음, 요즈음.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복어 한 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 1 실습실

< 해 설 >

- ㄱ.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 쓴다.
  - 차 한 대 : 명사 관형사 의존명사
- ㄴ. 수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다.
    - 이천십이 년 십이 월 십 일 → 이천십이년 십이월 십일
    - 일곱 시 삼십팔 분 → 일곱시 삼십팔분
  - 숫자 다음의 ‘개년, 개월, 년간, 시간, 분간, 주간, 초간, 일간’은 그 말을 한 단어로 하여 띄어 쓴다.
    - 일 개월, 한 시간, 일 일간, 삼 개년,
    - 1개월, 1시간, 1일간, 3개년, 1분간, 1년간, 1초간, 1주간.
  - 그러나 접미사 ‘여’가 들어가면 ‘간’은 뒷말에서 띄어 쓴다.
    - 10여 일 간, 50여 년 간
-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명사는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 해 설 >

1.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의미 파악에 지장이 있다. 따라서 만 단위로 띄어 쓴다.

- ㄱ.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 ㄴ.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2. 다만, 금액을 적을 적에는 변조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이다.

- ㄱ. 일금 :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 ㄴ. 돈 : 일백칠십육만오천원임.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결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 해 설 >

1. 겸(兼) :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한자어 형태소. 다음 예에 서처럼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므로 의존명사로 다룬다.

예) 친구도 만날 겸 구경도 할 겸

2. 대(對) : ‘상대하는 또는 짝이 되는, 비교되는’과 같은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그러나 ‘대(짝)를 이룬다.’처럼 쓰이는 경우는 자립 명사이며, 또 ‘대미(對美) 수출, 대일(對日) 무역’과 같이, ‘대’가 앞뒤 두 단어에 관계되지 않는 구조일 때는, 접두사로 처리한다.

3. 내지(乃至) : 원래의 뜻은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 데 그 중간을 줄일 때 쓰는 말’이지만, 흔히 ‘혹은, 또는’과 같은 뜻을 표시하므로, 접속부사로 다룬다.

4. 및 : 그 밖에도 또, …와 또. 접속부사.

5.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등지(等地) : 열거의 뜻을 표시하는 의존명사.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 해 설 >

단음절로 된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두 띄어 쓰면 오히려 독서의 능률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붙여 쓸 때는 아무렇게나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에 따라 붙여 써야 한다.

예) 그 때 그 곳 / 그때 그곳 / \*그 때그 곳

제 3 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 해 설 >

1.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어' 뒤에 다른 단어가 붙어서 된 단어는 그 수가 많을 뿐더러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 붙여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단어로 다루어 띄어 쓰기도 하여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일관성 있는 표기 체계를 유지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2. '-아/-어' 뒤에 '서'가 줄어진 형식에서는 뒤의 단어가 보조 용언이 아니므로, 붙여 쓰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휴지를 주워 버려라. 휴지를 주워버려라.  
휴지를 주워(서) 버려라( × 주워버려라).

3. 의존 명사 '양, 척, 체,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용언도 앞 말에 붙여 쓸 수 있다.

- 다만,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동사인 경우는 보조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조사가 개입되는 경우는, 두 단어(본용언과 의존 명사) 사이의 의미적, 기능적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붙여 쓰지 않도록 하였다. 또,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는, '덤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띄어 쓰도록 했다.

4. 보조용언이 거듭될 때에는 앞의 보조용언만 붙여 쓸 수 있다.

기억해 둘 만하다	읽어 볼 만하다	도와 줄 법하다
기억해둘 만하다	읽어볼 만하다	도와줄 법하다

제 4 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역/남궁 역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 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 탄도 유도탄

< 해 설 >

1. 성명에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성은 혈통을 표시하는 가족의 이름이며, 이름은 가족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특정한 개인식별부호(個人識別符號)이다. 그러므로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성은 거의 모두 한 글자(음절)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과 이름은 붙여 쓰기로 한다(한글학회의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에 준한다.

- 다만, 두 자로 된 성이나 외자로 된 이름의 경우는 성과 이름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2.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원광 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 교육과’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원광, 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 교육과’ 여섯 개의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위의 예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세 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3. 전문용어란,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대응하는 합성어의 성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붙여 쓸 만한 것이지만, 그 의미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거나, 모두 붙여 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타>

### 1. '간(間)'의 띄어쓰기

- '간(間)'은 의존명사, 접미사, 합성어의 일부 등으로 쓰인다.

1) 의존명사 :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 띄어 쓴다

- (1) 서울과 부산 간 야간 열차
- (2)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3)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 (4) 남녀 간, 상대 간, 남북 간, 한미 간, 상호 간, 서로 간

2) 접미사 : 일부 명사 뒤에만 붙어 '동안'이나 '장소'와 같은 특수화된 의미를 표현.

- (1) 이틀간, 사흘간, 한 달간, 삼십 일간
- (2) 고깃간, 대장간, 외양간, 푸줏간, 방앗간, 마구간, 뒷간, 야장간

3) 합성어의 일부 : 일부 한자어 뒤에 붙어 합성어 형성.

- (1) 국제간, 내외간, 모자간, 부자간, 부부간, 부지불식간, 불식간, 좌우간, 다소간, 고하간 : 조만간(다른 예와 달리 이 예는 부사임.)

### 2. '중(中)'의 띄어쓰기

- '중(中)'은 명사, 의존명사, 합성어의 일부 등으로 쓰인다.

1) 명사 : 등급, 수준, 차례 따위에서 가운데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 (1) 이번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중은 된다.

2) 의존명사 : '어떤 가운데(1), 무엇을 하는 동안(2),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3),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지 않는 동안(4), 안이나 속(5)'의 의미.

- (1) 너희들 중에 철수네 집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 (2)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끼어들지 마라.
- (3)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하다.
- (4) 그는 오늘 중으로 퇴원할 예정이다.
- (5) 해수 중에 녹아 있는 산소.

3) 합성어의 일부 : '어떤 상태 속에서'의 의미.

- (1) 밤중(-中), 은연중,(隱然中), 부지중(不知中), 부지불식중(不知不識中), 무의식중(無意識中)

2. -들 : (접미사) 여기에 사람들이 있다.

들 : (의존명사) 여기에 책, 연필, 지우개 등이 있다.

3. -지 아니하다/못하다

1) 용언의 어미 '-지' 다음의 부정 보조동사 '아니하다, 못하다'와 질과 양의 우열을 나타내는 '못하다'는 붙여 쓰고 그 외의 경우는 띄어 쓴다. '-지' 뒤에 조사가 붙더라도 붙여 쓴다.

(1) 어미 '-지' 뒤 : 먹지(를) 못하다, 곱지 못하다; 곱지(는) 아니하다, 먹지 아니하다.

(2) 질과 양의 우열 : 동생만 못하다, 이것보다 못하다, 공부를 못하다(성적이 나쁘다)

(비교) 공부를 못 하다.(불이 나가서), 공부를 아니 하다.

4. -지다

1) 명사에 직접 붙어 용언을 만드는 '지다'와 어미 '-아, -어, -와, -워' 등에 붙어 피동을 나타내는 '지다'는 뒷말에 붙여 쓴다.

2) 그러나 명사 다음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띄어 쓴다.

(1) 그늘지다, 기름지다, 등지다, 모지다, 터지다, 떨어지다, 엮어지다, 아름다워지다, 추워지다

(비교) 그늘이 지다, 숨이 지다.

5. '온통, 더할 수 없이, 가장'의 뜻을 가진 '맨'은 관형사이므로 띄어 쓰고, '비다(空)'의 뜻을 가진 '맨'은 접두사이므로 붙여 쓴다.

1) 관형사 : 구경거리는 없고 맨 사람뿐이다. 맨 처음, 맨 끝, 맨 꼴찌, 맨 나중.

2) 접두사 : 맨손, 맨주먹, 맨입.

6. '두 번'에 대응되는 '한 번'은 띄어 쓰고, 그 이외의 막연한 '일차, 일단, 시험삼아'의 뜻일 경우는 붙여 쓴다

1) 안 되나 한번 하고 말겠다.

2) 우리 한번 열심히 해 보자.

7. '몇'은 다음 말에 한하여 붙여 쓴다.

1) 몇몇 해, 몇십 명, 몇백 개, 몇천 마리, 몇만 킬로, 몇십만 장, 몇백 냥, 몇천만 단어, 몇억 마리, 몇조 개

2) 몇 번, 몇 사람

8. '각(各), 전(全), 본(本), 해(該)'가 독립성이 없는 한 음절의 말과 어울려 굳어 버렸을 경우에는 붙여 쓴다.

1) 각급, 각자, 본교, 본관, 전교, 전신, 해교(該校), 해인(該人)

9.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명사에 '시키다, 되다'가 붙어 한 낱말이 될 때, '시키다, 되다'는 접미사이므로 뒷말에 붙여 쓴다. 또한 명사 아래에 붙어서 피동을 나타내는 '받다, 당하다' 역시 접미사이므로 뒷말에 붙여 쓴다.

1) 결정되다, 결정시키다 ; 오해받다, 봉변당하다.

10. 명사 아래에 접미사 ‘화’가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그렇게 됨을 나타내는 말 아래에, 다시 ‘하다’가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 다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붙여 쓰지 아니한다.
- 1) 대중화하다 ; 결정을 하다, 봉변을 당하다, 대중화를 하다.
11. ‘못되다’가 ‘버릇없이 자라서 되어 먹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만 붙여 쓴다.
- 1)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 난다. 못된 놈.
  - 2) 거짓말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12. ‘안되다’(형용사)는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라는 의미일 때만 붙여 쓴다.
- 1) 얼굴이 안돼 보인다. 고생하는 것을 보니 정말 안되었다.
  - 2) 매우 안된 말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3. ‘안 하다’는 늘 띄어 쓴다.
14. ‘잘나다, 잘생기다, 잘살다, 못나다, 못생기다, 못살다’는 하나의 형용사이므로 모두 붙여 쓴다.
15. ‘-어지다’, ‘-어하다’는 앞말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붙여 쓴다.
- 1) 이루어지다, 예뻐지다, 잘 만들어졌다.
  - 2) 행복해하다, 애통해하다
16. 붙여 쓰는 예들
- 1) 초등학교/고등학교, 전라북도, 태백산맥, 의존명사, 그동안  
※ ‘그간, 그사이’와 동의어로 쓰이는 ‘그동안’은 붙여 쓴다.
  - 2) 출선수범, 시행착오, 삼고초려, 금수강산, 낙화유수, 동가홍상 <한문에서 온 고사성어, 문구>
  - 3) 김치찌개, 제육볶음, 옥수수기름, 고춧가루 <음식 이름, 재료명>
  - 4) 사과나무, 강장동물, 조선휘박 <동식물의 분류학상의 단위, 품종명>
  - 5) 석회질소, 염화나트륨 <화학 물질의 이름>
  - 6) 신약성서, 경국대전; 갑오경장, 임진왜란 <한문식의 서명, 사건명>
17. ‘상(上), 하(下), 내(內), 외(外), 초(初), 말(末), 백(白)’ 등의 띄어쓰기
- 1) 상’은 붙여 쓰고 ‘하’는 띄어 씀.
    - (1) 영업상, 가정 형편상, 통계상의 수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 “위”의 뜻과 거리가 먼 ‘상(上)’은 접미사임
    - (2) 이러한 인식 하에, 단장의 인솔 하에, IMF 체제 하에서  
※ 이때의 ‘하’는 의존명사임.
    - (3) 범위 내, 이 구역 내
    - (4) 예상 외, 이 계획 외에도, 전공 외의 교양 과목

(5) 20세기 초, 내년 초, 개국 초, 학기 초

(6) 90년 말, 이 달 말, 이번 학기 말쯤에 보자, 고려 말, 금년 말  
※ '학기말 시험, 학년말 고사'처럼 굳어진 경우는 붙여 씀

(7) 주인 백, 관리소장 백